

“TV 비켜” 모바일 동영상 전성시대

10~20대 이용자 TV 추월

이용시간 1년새 31% 급증

웹드라마 등 전용 동영상 확산

스마트폰으로 방송의 주요 장면만 챙겨 보는 등 모바일 동영상 시청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LTE 보급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에 힘입어 이용 시간이 급격히 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 일평균 이용자 수가 TV나 PC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동영상은 총 이용 시간이 2014년 기준 160억분에서 지난해 210억분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게임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다른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변동 없이 정체된 것과 대조된다.

이용 시간 변화 추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향후 성장률 측면에서도 동영상은 다른 서

비스를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모바일 동영상의 인기는 젊은 층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연령별·미디어별로 동영상 일평균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는 모바일이 각각 332만명, 498만명으로 TV(315만명·466만명)를 앞섰다. PC는 각각 모바일의 6분의 1,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의 영상 소비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네이버 모바일 앱 전체 이용자의 68%(1345만명)는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은 동영상 시청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81%(870만명)에 달했고, 영상 특화 앱인 유튜브의 전체 이용자 수는 2015만명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동영상은 LTE 서비스의 확대와 온라인 전용 콘텐츠의 생산 증대에 힘입어 당분간 전성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닐슨코리안클릭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무선 트래픽이 급증하고 전통 매체로서 입지가 굳건했던 TV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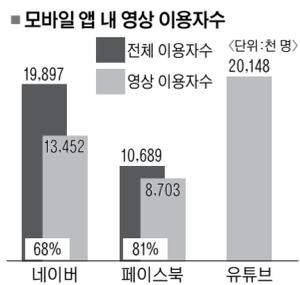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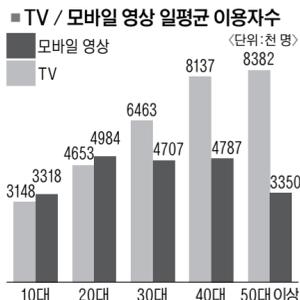
이 흔들리는 가운데 웹드라마, 웹예능 등 온라인 전용 동영상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전성시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영상 콘텐츠별 전망에 대해서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로 진화해 고품질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고, RMC(사전 제작 콘텐츠)는 젊은 온라인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새로운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미디어 소비자도 모바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닐슨코리안클릭이 만 7세 이상 69세 이하 4만2000여명에 대한 모집단 추정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TV·모바일 또는 PC·모바일을 이용하는 이른바 ‘2-스크린’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18세는 15%에서 16%로, 35~49세는 14%에서 17%로, 50세 이상은 17%에서 22%로 각각 1~5%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9~34세는 14%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20~30대 인기 스마트폰 앱

남자 ‘게임’ 여자 ‘쇼핑’

20~30대의 가장 인기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APP)은 남성의 경우 ‘모바일 게임’, 여성은 ‘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앱은 ‘음악서비스’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지난해 5월 11일~7월 24일 스마트기기 이용자 4404명을 면접조사한 보고서 ‘소비자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1.4%p)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이용자 중 20대 남성이 모바일게임 앱을 설치한 비율은 41%, 30대 남성은 36%로 나타났다.

이는 SNS·모바일메신저, 음악서비스, 쇼핑, 교통 서비스 등 모든 앱 가운데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20~30대 여성의 모바일게임 앱 설치율은 23~24%로 남성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쇼핑관련 앱은 20~30대 여성의 설치비율이 각각 27%와 32%로, 같은 연령대 남성(1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음악서비스’ 앱 설치율은 남성(20대 32%·30대 22%)과 여성(20대 37%·30대 25%)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근 한 달 동안 새로 설치한 앱으로는 응답자의 29%가 ‘SNS·모바일메신저’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게임’(26%)과 ‘음악서비스’(21%)가 뒤를 이었다. /빅데이터연구소 pboxer@kwangju.co.kr



유튜브로 보는 화성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는 9일(현지시간) 화성의 나미브 모래언덕에서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에 실린 마스트 카메라 촬영해 제작한 360도 영상을 공개했다. 이 화면은 JPL의 큐리오시티 프로젝트 홈페이지(mars.jpl.nasa.gov)에 삽입된 유튜브 비디오로 볼 수 있다. (NASA 유튜브 캡처)

과열 경쟁 탓? ...경영난 맞은 알뜰폰 사업자들

알뜰폰의 저가 경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유지하기에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과 ‘이지모바일’은 2014년 말 부채 비율이 각각 700%와 1400%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세종텔레콤’은 부채비율이 100%로 안정적이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억원으로 급감을 기록하며 순손실이 49억원이 발생해 적자로 돌아섰다. ‘인스코비’도 2013년부터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를 넘어섰고 조만간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재무 상황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알뜰폰 1위인 ‘CJ헬로비전’은 2011년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22%에서 8%까지 급감한 바 있다. 하위 후발주자들도 비슷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아인슈타인 ‘중력파’ 수수께끼 풀릴까

과학자들 내일 발표 주목

우주 탄생 원리 밝힐 단서

과학자들이 오는 12일 ‘중력파’, 즉 우주 전체에 걸쳐 에너지를 운반하는 공간과 시간의 물결의 존재를 찾으려는 시도에 대해 주요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세기 전에 일반상대이론에 입각해 중력파의 존재를 주장했으나, 중력파 자체는 직접 측정된 적이 없었다.

중력파는 블랙홀이나 중성자성과 같이 질량이 큰 물체를 주변에서 형성돼 공간과 시간을 일그러뜨리는 것으로 믿어진다. 만약 중력파가 발견된다면, 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학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우주 탄생을 이해하는데 큰 구멍을 매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부터 고급레이저간섭계중력파 관측소(LIGO)가 미국에 설치된 검출기를 이용해 중력파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LIGO와 함께 일하지 않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의 우주론 학자 로런스 크라우스는 “LIGO에 대해 내가 전

에 올린 소문이 독립된 소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중력파가 발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흥분되는 소식입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가 남긴 글은 엄청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발표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현지시간 11일 오전



메사추세츠 공대(MIT)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중력파를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간섭계 LIGO.(NSF 홈페이지)

10시30분(한국시각 12일 새벽 1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서 나온 성명서에 따르면 이 발표 행사에는 “캘리포니아공과대(캘텍), 매사추세츠공과대(MIT), LIGO 과학 협력단 등의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검출하려는 노력에 관해 과학계에 진전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모일” 예정이다.

LIGO는 지구를 지나가는 중력파가 만드는 매우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기 위해 MIT와 캘텍 과학자들이 만든 검출 시설로,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과 워싱턴주 헨리크에 설치돼 있다.

제작년에 ‘BICEP2’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탐지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 후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으며 입장을 번복했다. /연합뉴스

직경 30m소행성, 내달 지구 인근 지난다

충돌 확률 매우 낮아

다음달 5일 직경 30m의 소행성이 지구 인근을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미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3월5일 직경 30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 주변을 지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처음 관측돼 ‘2013 TX 68’이라 명명된 이 소행성은 지구와 1만 7700k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지나갈 수 있다. 이는 지구와 달의 거리 38만4400km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인공위성보다 가까운 곳을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NASA는 “이 행성은 첫 발견 이후 관측할 수 있었던 기간이 매우 짧았다”며 “형성 가능한 궤도가 많으므로 최소 접근 거리 추정 폭도 넓다”고 밝혔다. 지구 상 어느 지점에서 이 소행성을 관찰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소행성은 2017년 9월 28일 다시 지구 근처를 지날 예정인데 이때는 250만분의 1 확률로 충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46년과 2097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확률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 근지구천체(NEO) 연구센터의 폴 코너스는 “실질적 우려가 되기에 충돌 확률이 너무 낮다”며 “앞으로 관찰을 이어가면 충돌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행성은 2013년 처음 관측됐을 때 지구와 200만km 떨어져 지나갔다. 같은 해 2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 추락해 1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운석의 직경은 20m였다.

직경 30m짜리 2013 TX68이나 같은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첼랴빈스크 충돌 때의 두 배 규모 에너지가 분출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했다. /연합뉴스

<h3>신축 상가원룸 매매</h3> <p>〈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4층) 신축원룸 (4면 올대리석 시공)</p> <p>1층 (상가 1칸) 2층~3층 (원룸 10개) 4층 (주택)</p> <p>☆ 보 5,000만 - 월 480만 ☆</p> <p>매가 6억 7천만 (음 1억2천)</p> <p>☆ 원룸 추천 ☆</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모아 A,P,T 코너지리) (1층상가, 1개,2개 분할가능) (4층 주택) (2~3층-원룸 6개, 투룸 2개) 보 4천만 월수익 480만 (음 1억5천만) → 매가 6억8천</p> <p>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2개,원룸6개) (보4천5백,월220만) → 매가 7억8천</p> <p>③ 용봉지구 원룸 총룸-20개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h3>1층 상가 매매</h3> <p>〈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p> <p>첨단 부영1차 A,P,T.건너편 (광산 KT지사 부근)</p> <p>※ 미용실,식당,프렌차이즈 추천</p> <p>(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p> <p>(보 - 800만, 월 80만)</p> <p>매가 1억5천만</p> <p>☆ 수익성 상가 ☆</p> <p>① 전남 곡성 전원주택 (토 80평, 건30평) 입목역, 섬진강 부근 → 매가 4천만</p> <p>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오피 (음5천) (보천,월80만) → 매가 7억8천만</p> <p>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음5천) (보5백,월45만) → 매가 8천5백</p>	<h3>법률경매</h3> <p>(주)대신경매</p> <p>(특수물건 추천)</p> <p>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룸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홀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p> <p>2. 동구 수기동 (토 130평, 건 320평) (1층, 생활시설,창고-2층~3층,소매점-4층~5층,사무실)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만</p> <p>3.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건118평) 북구 두암동 우체국 옆, 2차선 도로 접 ☆ 1층 점포,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 5천 → 최저가 2억 5천만</p> <p>4. 동구 학동 (토 114평, 건 60평) ※학동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 약 2미터 도로 접으로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9천</p> <p>☆ 직원 구함 ☆</p> <p>경매 컨설팅, 부동산 배우실분 가족처럼 함께 일하십시오 모집 합니다.</p>	<h3>경매교육</h3>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초교육부터 실전까지</p> <p>(인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010-6670-9800	010-7384-7800	010-6834-4800	010-6832-9700